

지역 매아리

부안군, 빈집 재생사업 추진

부안군은 흉물로 버려진 빈집을 주거공간 및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증가와 이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청소년 탈선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저소득계층,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65세 이상 어르신 등에게는 주거공간으로 제공하고 지역활동가(예술·작가)에게는 공방·화방·마을 책방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부안군은 올해 1억 4000만원을 투자해 7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회항자는 오는 3월 13일까지 빈집이 있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조건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저소득계층과 지역활동가 등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주거복지 실현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대폭 확대 추진

부안군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기존 893ha에서 978ha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33억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조건은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농지 또는 지난해 변동직불금 수령농지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인 등 논 타작물 재배 의향이 있는 경우다.

농업인별 최소 신청면적은 1000㎡이며 가격별동이 크고 산지폐기 등 수급 조절 대상 품목인 무, 배추, 고추, 대파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단가는 조사료는 ha당 30만원 오른 430만원, 두류는 45만원 오른 325만원, 일반작물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340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휴경농지도 신청할 수 있으며 ha당 280만원이 지원되고 이행점검 기간(7월 1일~10월 31일) 동안 반드시 휴경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회항자는 오는 6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에서 신청 가능하며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11월경 지원금이 지급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선열들의 숭고한 뜻 기릴 터”

정읍시, 3·1 태인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 준비 ‘분주’

3.1 태인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내달 1일 태인에서 열린다. 정읍시와 태인청년회의소(회장 박민우)는 “100주년을 맞는 올해는 더욱盛大하고 뜻깊은 행사로 마련해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리고 3.1태인독립만세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와 태인청년회의소는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행사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양 측은 “지난 2년 동안 AI 등의 가족질할 발생으로 기념행사를 갖지 못했던 데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서 이번 행사를 독립운동 정신의 계승 발전은 물론 시민 대화합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재현행사는 3월 1일 10시 30분부터 태인 일원에서 열린다. 국가보훈처를 비롯 정읍교육지원청, 정읍경찰서, 군부대 등 지역 내

기관·단체와 10개 보훈단체, 시민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태인 3.1 운동 기념탑 참배 후 태인초등학교에서 각급 기관·단체장과 태인 출신 애국지사인 송영근의 후손인 가수 송대관 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독립선언서의 릴레이 낭독을 갖는다.

태극기를 손에 든 참석자 모두가 면 중심지를 행진한 후 당시를 생생하게 재현하는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올해는 특히 전문교수의 시나리오에 따라 전북과 학생대 방송연예미디어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3각극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그날의 뜨거웠던 함성과 절박함을 생생하게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태극기 페이스트레이팅과 손 태극기 나눠주기 등의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유진섭 시장은 “구과 백정기의사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한 정읍은 임시정부에 독립운동자금을 오랫동안, 그리고 상

당한 액수를 전달했던 애국의 고장이다”며 “재현행사에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그 위대함을 되새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조만간 태인 3.1운동과 정읍지역이 합일 민족운동의 중심지이었음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도 가질 예정이다.

태인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의 기념독립선언서 발표 이후 전국적으로 합일운동이 번져가던 당시, 태인장날이던 같은 달 16일 정오에 맞춰 태인 지역 곳곳에서 일어났던 만세운동이다. 당시 참여자들은 헌병대의 무력 제지에도 불구하고 10여일간 독립만세운동을 이어갔고 이는 호남지역 독립만세 운동 확산의 불씨가 됐다. 시와 태인청년회의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3월 1일 기념식을 가져오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3·1운동 100주년 맞이 기념행사 ‘풍성’

고창군, 동리국악당서 기념식·만세 행진·기념공연 예정

고창군이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연다.

21일 고창군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오전 10시 동리국악당에서 “우리가 지킨 100년의 역사, 희망의 시작”을 주제로 한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기념식은 관소리와 추모 사냥송을 시작으로, 3·1운동 경과보고, 지역 청소년 대표 33명의 독립선언문 낭독으로 이어진다. 행사 때는 고창

모양합창단(기념노래 선도)과 답소 DIY공방(페이스트레이팅)이 재능기부로 참여한다. 식후에는 동리국악당에서 군청광장까지 만세 운동이 진행된다. 선열들의 뜨거웠던 열정을 기억하기 위해 행진 도중 다양한 퍼포먼스가 예정돼 있다.

당일 오후에는 (사)동리문화사업회가 준비한 동리국악 테마공연 ‘봄 그리고 다시 봄’ 공연이 펼쳐진다. 동리문화사업회 관계자는 “관소리와 무용을 통해 격동의 현장에 있는

듯 한 감동을 함께하고 고창의 정의와 의로운 정신을 계승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밖에 고창군은 3·1절을 전후해 독립유공자 유족을 방문하고, 독립유공자 명패 달아주기 사업을 진행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읍·면 주요거리는 오는 25일부터 3월3일까지 태극기를 게양하고, 일반 군민대상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고창군에선 대표적인 반외세 민족운동으로 3·1운동의 모태로 평가받는 “동화농민혁명”이 시작됐다. 의항의 도시답게 근촌 백관수 선생 등 73인의 독립유공자가 지칭돼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작은도서관 ‘우리 동네 공예 교실’ 큰 호응

고창군이 28일까지 관내 작은도서관 4개소(고수해마루, 아산선운산, 대산리별, 무장골샘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우리 동네 공예교실’의 주민 호응이 크다.

이번 프로그램은 각 도서관 별로 2회씩 운영되며 프랑시자수로 만드는 브로치와 스텐실 기법을 이용한 예

코백 등 실용성 있는 공예 소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평소에도 대산리별작은도서관을 자주 찾는 한송이씨는 “도서관에서 책만 빌려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화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어서 새롭다”며 “이런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참여소감을 전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고창군이 인문학 도시, 책 읽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면 단위 작은도서관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인문학 독서문화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작은도서관 및 행사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군민도서관(560-805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신재생에너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정읍시·미래솔라텍 투자협약

정읍시가 21일 (주)미래솔라텍과 첨단 과학산업단지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주)미래솔라텍은 태양광 발전 시설물 제조와 제작 시공 전문 기업으로 지난해 설립됐다.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주)미래솔라텍은 2020년까지 첨단 과학산업단지 내 약 4,059㎡(1,227평) 부지에 1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사업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정부와 전북도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힘입어 (주)미래솔라텍이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첨단과학산업단지 투자 협약률은 95%로, 시는 전북도·전북연구개발특구·IH 등과 함께 잔여부지에 우량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과 맞물려 태양광 에너지 설치 수요가 산업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유진섭 시장이 21일 복면 3산업단지 내 KCFT 생산공장을 방문했다.

“기업경영의 허리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

유진섭 정읍시장, KCFT 생산공장 현장 방문... 건의사항 청취

정읍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유진섭 시장이 21일 복면 3산업단지 내 KCFT 생산공장을 방문했다. 유 시장은 기업체 현황을 둘러보고 애로와 건의사항 등 업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유 시장의 현장 방문은 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함이다. 민선 7기 핵심시정방침인 ‘살맛나는 첨단경제도시’와 맞닿아 있다.

유 시장은 “KCFT를 비롯한 정읍 입주 기업들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전복도와 중앙에 적극 건의해 해소하도록 하겠다”며 “정읍시가 기업경영의 허리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기업 현장을 정기적으로 찾아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소통행정을 강화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KCFT는 1996년 동박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주력해왔다. 이 기업은 전지용 동박과 FCCI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다.

2018년 기준, 매출액은 3천억 원 규모이고 고용인원은 202명이다. 직원의 60%를 지역사람들로 채용해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천5백억 원을 추가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고 50여명을 신규 고용 할 계획이다.

김영태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R&D 투자와 혁신으로 Thin-tech 분야 글로벌 1위에 안착하지 않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정읍과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회사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ottle of wine on the left and a grid of smaller images showing various gift sets on the right. Text in the center describes the wine as 'Premium Otdi Wine' and lists several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 cartoon bear mascot is visible in the top right corner.